

## 자 체 평 가 서

팀명	팀 46 CHOI'S	성명	최민혁
프로젝트제목	Tall Tales		
자체 평가	<p><b>프로젝트 수행 소감:</b> 평소에 전공 과제 등은 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정한 프로젝트를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다. 다만 일정이 빡빡해서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그림보다는 결국 체력과 기력의 한계로 타협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.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처음에 전반적인 구조와 구현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열기설기 기워진 누더기 코드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. 2명밖에 없어서 팀 간 의사소통이 굉장히 편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손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. 다만 이러한 수평적인 구조에선 손발이 어지간히 잘 맞지 않으면 3~4명을 넘어가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수직적인 구조로 의사소통을 해야 해서 개개인의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 같았다.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개인적 업무효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다. 실제로 얼마 전에 본 구글 직원의 글에서 모든 개발자들이 전체 업무 시간의 20%를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. 이는 어찌 보면 업무시간, 아니 구글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20%를 날린 것 같지만, 실제로는 그로 인해 평소에도 자유롭게 능력을 정진시킬 기회를 준다는 생각이 든다.</p> <p><b>개선요구사항:</b> 전년도 프로젝트 중 잘 된 것들을 좀 소개하거나, 통계를 제시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프로젝트 성향이나, 진행 정도를 사전에 공지해서 학생들이 완성도에 대한 감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.</p> <p><b>발전적 제언:</b></p>		